

“새 이슈 제시... 지역사회 논의 숙성 역할 필요”

군공항 ‘챗GPT에 묻다’ 흥미 ‘법조 문제’ 더 깊은 고민 필요 기사에 다양한 목소리 담겨야

전남일보 제11기 독자위원들이 전남일보가 새로운 지역 현안을 제시하고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일보는 29일 6층 회의실에서 제11기 9차 독자위원회를 개최, 지난 두 달간 본보에 보도된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 전문가로서 전남일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공진성 위원, 박시현 위원, 윤동현 위원이 참석했으며, 이현석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박성원 편집국장은 “전남일보는 지난 두 달간 지역 내 현안에 대한 보도에 집중했다. 심각한 농촌 인력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는 일주이슈 기획,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앙공원 개발 관련 풍암호수를 둘러싼 시와 주민 간의 입장차, 대안 등을 제시했다”며 “최근에는 118년 만에 문을 닫는 화산탄광을 집중 조명하고 폐광 이후 근로자의 재취업,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도 다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남일보는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안을 한 걸음 더 들어가고 해결책, 대안 등을 찾아보는 보도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독자위원들의 발언 내용.

● 공진성 위원= 지난 21일자 3면 전면 에 실린 ‘챗GPT에 묻다-광주 군공항 이전’은 매우 흥미로웠다. ‘챗GPT’를 보도에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고, 또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핵심을 인공지능의 대답을 통해 객관화해 정리했다. 인공지능과 자연지능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며 공존하게 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기사였다.

26일자 일주이슈에서 국내 1호 탄광인 화산탄광의 역사를 다룬 것 역시 인상적이었다. 폐광된 경도 입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광부의 모습은 볼품없었다.

다만 27일자 2면에 실린 이낙연 전 대표 ‘역할’ 관련 보도에서는 이개호, 이병



공진성 위원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훈 의원의 인터뷰만 실려서 아쉬웠다. 기사의 제목은 ‘지역 정치권 이낙연 적극 역할 할 것’이지만, 지역 정치권의 생각을 두루 전하기보다 이른바 ‘친낙계’로 분류되는 두 의원의 생각만을 전하면서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부적절하게 유도했다.

28일자 7면 ‘광주시 광역 평생학습 도시 선포’ 기사는 29일부터 광주에서 개최되는 ‘2023 평생학습 정책포럼’ 개최 소식을 알리며 이를 기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한다’고 보도했다. 스트레이트 기사여서 불가피한 측면은 있겠지만, 그동안 광주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현실이 함께 지적되지 않아서 아쉬웠다. ‘전국 최초 광역평생학습도시 선포’를 계기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면 좋겠다.

● 박시현 위원= 최근 신문들을 보니 광주 내 지역신문들이 과거에 비해 활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가지 정도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첫 번째로 그동안 무수히 쏟아진 지역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 끌려가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다. 편집국장이 앞서 언급한 풍암호수라던지, 복합소풍물이라든지, 지역 내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해결책은 없다 보니 처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또 한 가지는 지역 사건사고가 없어서라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박시현 위원 (광주상공회의소 부장)

다시 지역 내 언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남일보가 새로운 지역 현안을 끌어냈으면 한다. 환기를 위해 이슈를 새로 제시하고, 또 매듭지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더 따끔한 지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윤동현 위원= 4월26일자에 보도된 ‘미향 광주 이미지 제고...광주시, 맛집 BI 개발한다’ 기사는 차별성, 실효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만 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해 아쉬웠다.

5월24일자에 보도된 ‘글로벌대학 30 향해 세 학교가 뭉칩니다’, 지난 18일자 기사인 ‘울 수능 난이도 하락하나?’ 등 최근 현 정부의 대학 입시 관련 기사도 눈에 띄었다. 대학 통합 현안과 입시 이슈는 대학 운영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에게 있어 진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기사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많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는 빠져있다. 전남일보만의 독창적 시각을 가지기 위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가 기사에 녹여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4일자 신문에 실린 ‘단 4시간 수업에 안전 책임지는 ‘신호수’ 이수증’ 기사는 정말 감명깊게 봤다. 기자가 직접 겪은 일들이 수기로 담겨 전달력이 생생했다. 실제로 받은 이수증을 보고 그 취재 열정이 대단함을 한 번 더 느꼈다.

● 이현석 위원= 지난 5월7일자 일주이슈로 보도된 ‘비엔날레-관광 연계 예술



윤동현 위원 (유튜버)

여행 콘텐츠 강화 속제’ 기사는 단순한 비엔날레 중계 보도가 아니라, 비엔날레가 남긴 과제를 깊이 분석한 기사로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천혜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미식문화가 발달한 광주전남이 관광의 불모지처럼 인식되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지자체 특히 광주시의 소극적인 대응과 전략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외지 관광객을 위한 숙박, 교통, 볼거리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광주-전남 사이의 연계 관광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짚어주기 바란다. 전남일보가 다른 지역언론에 비하여 광주전남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지적해줘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듯하다.

5월15일자 ‘명백 짙긴 지역대법관 지역 균형 반영’ 사실과 지난 27일 보도된 ‘1심만 2년 6개월째-이상한 광주지법 재판’ 기사도 눈에 들어왔다.

먼저 ‘1심만 2년 6개월째-이상한 광주지법 재판’ 기사의 경우, 중앙언론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연속 보도되는 상황에서 광주법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려준 보도였다. 특히 지역 법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 문제를 다뤄준 덕분에 독자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고 본다. 시의성과 독자 이해도 측면에서 좋은 기사였다.

5월15일자 ‘명백 짙긴 지역대법관 지역 균형 반영’ 사실도 대법관 구성의 편향성 측면을 지적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된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는 아쉬운



이현석 위원 (변호사)

부분이 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 부분인데, 광주-전남 출신 법관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례(이용훈, 이상훈, 박보영, 박정화, 노정희 등 다수)는 최근까지 꾸준히 존재한다. 아마 사실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지역의 재조, 재야에서 오랜 연고를 맺고 활동한 법조인들의 대법관 진출이 없다는 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취지라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독자 이해도 측면에서 좋을 듯하다.

‘지역마다 다루는 사건-현안의 특색’이 무시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은 일면 타당하기는 하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판결이 자칫 법조비리의 씨앗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정치기사와는 다르게 법조기사는 이해관계의 존재, 사안의 내밀성, 가치관의 충돌, 규범조화의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법조계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전남일보가 나서서 지역사회의 논의를 숙성시키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박 편집국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박 편집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취재와 보도에 집중하고, 오늘 언급된 위원분들의 의견을 지면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정리=김은지 기자·사진=김양배 기자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역	고흥, 담양, 보성
인원	각 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수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돈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선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